부처님 사리에 두 팔 공양하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㉟ 소신공양

이때 일월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희견보살에게 이르셨다.

"선남자여, 나는 열반할 때가 되었고 멸진(滅盡)할 때가 왔으니 그대는 편하게 자리를 펴라. 내 오늘 밤에 마땅히 열반에 들리라."

또 일체중생희견보살에게 분부하셨다. "내가 불법을 그대에게 부촉하며, 모든 보살들과 큰 제자들과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과 또한 삼천대천 칠보 세계의 모든 보배나무와 보배 누대와 시중드는 천인들을 다 그대에게 부촉하며, 내가 멸도한 후에 사리도 또한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마땅히 유포하여 널리 공양을 베풀고 응당 수천 개의 탑을 세우도록 하라."

이렇게 일월정명덕 부처님께서 일체중생희견보살에게 분부하고 나서 그날 밤늦게 열반에 드시었다.

그때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것을 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부처님을 사모하여 곧 해차안전단나무로 섶을 쌓아 부처님 몸에 공양한 뒤 이를 태워 다비를 했다. 불이 꺼진 후에 사리를 거두어 8만4000의 보배 병을 만들어 8만4000의 탑을 세우니 높이는 3세계요, 표찰(表刹)로 장엄하고 여러 번개를 드리우고 온갖 보배 방울을 달았다. 그때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다시 스스로 생각하였다. "내가 비록 이렇게 공양하였으나 마음에 아직 흡족하지 못하니, 내가 이제 다시 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리라."

그리고 곧 모든 보살인 큰 제자들과 천·용·야차 등 모든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생각하라. 내 이제 일월정명덕부처님의 사리에 공양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한 뒤 곧 8만 4천 탑 앞에서 100가지 복으로 장엄한 팔을 태워 7만 2000년 동안 공양하여, 수없는 성문의 도를 구하는 이들과 한량없는 아승지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뇩다라삼먁삼보리심을 일으키게 하여 모두 현일체색신삼매(現一切色身三昧)에 머물게 하였다.

그때 모든 보살과 천신·사람·아수라 등이 그의 팔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일체중생희견보살은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를 교화하는 분이시거늘 이제 팔을 태워서 불구의 몸이 되었구나!"

그때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대중 속에서 이렇게 서원을 세웠다.

"내가 두 팔을 버렸으니 반드시 부처님 금색의 몸을 얻게 되리니 이 말이 진실하다면 나의 두 팔이 다시 이전과 같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서원을 마치자 그의 두 팔이 저절로 이전과 같이 되니 이것은 보살의 복덕과 지혜가 순수하고 두터웠기 때문이니라. 또 그때 마침 삼천대천세계가 여섯 가지로 진동을 하였고, 하늘에서 보배 꽃이 비 내리니 모든 사람과 천신들이 일찍이 없던 감격에 젖었다.

일체중생희견보살이 일월정명덕부처님이 열반하자 다비를 하여 부처님 사리에 두 팔을 태워 소신(燒身) 공양을 한 이야기다. 〈법화경〉에서의 사리는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법화경〉을 설하면 그 법문이 부처님의 진짜 법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한다. 다보여래가 바로 이 역할을 하기 위해 〈법화경〉에 등장하며 다보탑이 바로 다보여래의 사리를 상징하는 탑이라는 것이다. 사리는 전신사리(全身舍利), 쇄신사리(碎身舍利)로 구분하고 또 생신사리(生身舍利), 법신사리(法身舍利)라는 이름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작은 결정체로 나타난 진주 같은 물질을 사리라 한다. 〈금강명경〉에 계(戒)·정(定)·혜(慧) 삼학(三學)을 닦아 훈습한 얻기 어려운 결정체로 가장 뛰어난 복전(福田)이라 하였다. 복의 씨앗을 뿌리는 밭이라는 말이다. 〈법원주림〉에는 사리의 색깔에 대해 밝혀 놓은 이야기도 있다. 골(骨)사리는 흰색이며, 육(肉)사리는 붉은색, 발(髮)사리는 검은 색이라 하였다. 또 사리가 증식(增殖)하여 과(顆)의 수가 늘어난다고 한다. 불상에 예배하기 이전에는 부처님의 사리탑을 향해 예배하는 풍습이 먼저 생겼다.

〈반야불교연구원장〉

自性 청정함 알면 모든 戒 원만성취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㉟ 무상삼귀의계(無相三歸依戒)

동아시아에서 경전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졌던 〈육조단경(六祖壇經)〉은 판본에 따라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돈황본에는 혜능의 현창(顯彰)에 힘썼던 하택 신회의 가르침이 제자들에 의해 덧붙여졌으며, 다시 후대에 선종의 주류를 차지하게 된 홍주종(洪州宗) 사람들의 설이 덧붙여져 오늘날 전하는 〈육조단경〉이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수보살계의(授菩薩戒儀)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여러 판본 가운데 주요한 것만 간추리면 5가지 정도 되는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는 여겨지는 돈황본, 혜흔본 계통의 대승사본(大乘寺本)과 흥성사본(興聖寺本), 설숭본 계통의 덕이본(德異本)과 종보본(宗寶本)을 꼽을 수 있다. 5종 가운데 돈황본을 제외한 4종은 대체로 수보살계의가 비슷하다. 돈황본과 달리 4종본에는 자성오분법신향(自性五分法身香), 무상참회(無相懺悔), 사홍서원(四弘誓願), 무상삼귀의계(無相三歸依戒), 삼신자성불(三身自性佛)의 순서로 되어 있다.

4종본은 모두 자성오분법신향으로 시작하는데, 이는 당시 불교 의례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든 의례가 공양물을 올리고 향을 사르면서 시작되듯이, 5개의 법신향으로서 공양을 올리고 시작하는 것이다. ①계향(戒香)은 자기 마음속에 악함이나 질투, 탐욕, 성냄 등이 없는 것이다. ②정향(定香)은 산악의 경계에 자기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것이다. ③혜향(慧香)은 걸림 없는 지혜로 선행에 집착하지 않고 외롭고 가난한 이를 가엾게 여기는 것이다. ④해탈향(解脫香)은 마음에 반연이 없어서 자재무애(自在無礙)한 것이다. ⑤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자성의 참 성품이 공(空)에 빠지거나 고요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여(如如)한 것이다.

돈황본과 달리 4종본에는 무상참회와 사홍서원의 순서가 바뀌어 있다. 돈황본에서는 사홍서원한 후에 무상참회를 했지만, 4종본에서는 무상참회한 후에 사홍서원을 한다. 무상참회는 과거의 생각, 미래의 생각, 현재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과 미혹에 물들지 않고 지난날의 악행을 일시에 자기의 성품에 없애버리는 것이다. 사홍서원은 끝없는 중생을 제도하고, 끝없는 번뇌를 끊고, 끝없는 법문을 배우고, 위없는 불도(佛道)를 이루겠다고 서원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생은 자기 자신의 성품 속에 있는 번뇌와 어리석음, 미혹을 뜻한다. 따라서 바른 견해로써 깨우쳐 반야의 지혜로 제거해 버리면 본래 자기 성품 속에 있던 깨달음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므로 결국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된다. 또 자기 마음에 있는 허망함을 스스로 제거하고, 위없이 바른 법을 배우고, 스스로 깨쳐 불도를 이루는 것이다.

돈황본과 달리 4종본에서는 사홍서원을 마치고 나서 무상삼귀의계를 받는다. 삼귀의의 대상은 모두 깨달음[覺], 올바름[正], 청정함[淨]으로 동일하다. 첫째는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에 귀의하여 삿되고 미혹함이 생겨나지 않고 적은 욕심으로 만족할 줄 알아 재물을 여의고 색(色)을 여의는 것이다. 둘째는 자기의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생각 생각마다 삿되지 않은 까닭에 애착이 없는 것이다. 셋째는 자기의 마음이 청정함으로 돌아가 일체 번뇌와 망념이 비록 자성에 있으나 물들고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범부는 삼귀의계를 받고도 귀의할 대상인 부처를 밖에서 찾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처인 자기 성품에 귀의하지 않으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보살은 심지(心地)에 그릇됨이 없는 자성계(自性戒)에 귀의해야 한다. 혜능은 본래 청정하게 자성에 갖추어져 있는 계인 자성계를 설하는데, 이는 〈범망경〉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런 까닭에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한 줄 알면 바로 모든 계가 원만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⑪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현 모습서 전생·내생 알 수 있어

우리의 삶은 업으로 시작되고 업으로 멸한다.

불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 번 살펴보면 무언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것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도 헤어져야 하고, 내가 가진 삶의 조건이 남보다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많은 복덕을 갖고 세상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좀 더 좋은 부모를 만나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이번 인생이 멋지고 행복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으로 원망이나 아쉬움이 왠지 부모나 조상에게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남보다 부족한 조건으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정말 조물주가 있어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정해진 숙명이나 운명 때문에 내 삶이 결정되어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저절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일까요? 세상을 조금 살아본 사람이라면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의문들에 대한 해답도 없이 오늘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보면 전생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지금 행동을 보면 내생을 알 수 있다"고 〈삼세인과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생·현생의 모든 행위 미래생 결정

중생의 삶 업에 따라 행·불행 결정 돼

우리들이 현재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에는 과거에 지어 놓은 원인들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과거의 원인들이 그에 따른 과보를 남깁니다. 현생에서 지금 짓는 모든 행위 역시도 다음 세상에 태어날 윤회 생애에 필연코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처럼 과거생에 지어 놓은 것과 현생에 짓는 모든 행위는 현생과 미래생의 삶의 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생을 마치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중유세계(中有世界)에서 중음신(中陰身)으로 머무르는 동안에도 과거생과 현생에서 지은 업으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윤회하는 중생의 삶은 과거생에 지은 업보로 현생에 태어나고 전생에 지은 업력과 현생에서 지은 업력으로 또 악업을 지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중생의 삶은 업보로 시작되고 업보로 살아가며 업보로 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아함경〉 권 제44 '근본분별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저 중생들은 스스로가 행한 업으로 말미암아, 업에 따라 과보를 받는다. 업에 인연하고 업을 의지하여, 업에 따른 장소에서 중생은 그 업에 따라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며, 묘(妙)하고 묘하지 않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생의 삶은 스스로 지은 업에 따라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조물주나 절대신이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의지적 노력과 지혜로운 행위들 여하에 따라 나의 삶이 행복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업(業)과 업보(業報)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악한 업을 짓지 않고, 좋은 업을 쌓으며 또한 전생에 지어 놓았던 악업을 녹이는 수행을 통해서 좋은 업을 쌓아 스스로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불사
• 주 지 : 도암 (속명 : 이용린)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29번길 64-1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율림원
• 주 지 : 선묵 (불명 : 법화)
•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남면 신암리 158-25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2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